정책 세미나

정 당

대동단결하여 위기상황 극복해야

김 영 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낙농육우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형제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현상황을 낙농육우산업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의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농육우산업을 비롯한 한국농촌은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본인을 의정으로 내보내 주신 농어민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 생존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동지적 입장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을 위기적 상황이라고 근거함은 우리 농민이 할수 있는 작목, 축종이 어떤 것도 생존의 수단으로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축산물에 대응하고 아울러 농가부채의 빗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농촌상황을 위기적 상황이라고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농업을 보는 시각은 무사안일로 예를들면 농가부채가 8조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5조원이라고 축소 보고하고, 쌀도 작년에 16%인상했음에도 올해 추곡수매가를 12%인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히 수매량에 있어서도 천만섬은 수매가 되어야 하나 절반인 500만섬 수매를 요구한 것은 농촌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현 농정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결과 밝혀진 83년도 소파동시 2,200억원도 양축농가에게 짊어진 엄청난 부채이며, 본인이 국회농림수산위 소위원장으로 재직시 충남서산에 4톤트럭 100대분의 386톤의 수입쇠고기를 땅에 묻고 사람도 타보기 힘든 보잉점보기에 외국소 20만 7천두를 도입하여 이중 8,064두가 죽어 땅에 묻고 5만톤에 가까운 쇠고기를 들여 오다가 변질되고 이런 것이 현재의 우리 낙농육우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내 유명백화점들의 한우고기 사기판매로 엄청난 폭리를 취해 말썽을 빚고 있으며 이로인해 수입쇠고기 도입량은 늘어나게 되어 산지소값은 18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고 한우사육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평화민주당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생산자와 국민을 우롱한 사태의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경쟁 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국민들에게 우유를 더 많이 마시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경쟁에서 승리가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 38kg으로 미국 272kg, EC선진국 500kg, 일본 70kg에 비해 1/2~1/13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작년 우유소비량은 '88년에 비해 2.9%가 감소하였고 시유의 소비량은 8.4%나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2세를 위해 우유를 먹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식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통계자료에 의하면 8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6

유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적체된 분유를 대량으로 소비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채택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낙농가와 낙농관련 종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대동단결해야…

농촌에서 착유한 우유를 땅바닥에 버리는 장면이 T.V화면에서 보여졌으나 과연 우유가 온 국민이 먹고 남아서 버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가공업체의 재벌들이야 낙농가가 죽든살든간에 분유를 수입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분유체화가 농민이 과잉생산해서 우유가 남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아니며 이는 합리적인 공급·유통과 생산체제에 대해 정책빈곤과 부재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평민당에서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으며 다음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유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생산은 농림수산부가 담당하고 처리후에는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므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된 업무수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집유거부, 유대의 분유지급 등으로 낙농가와 유업체를 대립관계로 규정되지 않고 상호 숙명적 운

국내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우리밖엔 없을 것이며 이런 자금을 학교우유 급식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낙농산업이 일정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분유의 수입을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유의 적정재고량은 7,000톤이나 우유체화가 이 상태로 계속될 경우 올 3월말에는 2만톤을 예상하고 있으나 롯데, 해태유업 등 국내 대기업은 분유 90%, 코코아 10%를 섞어 만든 쵸코파우더를 연간 2만톤을 수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이런 유업체가 우유홍보를 할리도 없고 더군명공동체로 서로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세청에서 국민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잉여금이 3조원에 이르므로 이중 400억원으로 분유 1만톤을 수매하여 결식아동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을 확대 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 기업하나 정리하는데 4천억원의 돈을 지원하면서 4만여농가와 전국의 결식아동들에게 400억원이 투입하는 것이 아깝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료의 부가세만도 연간 1,6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연 수입개방과 부채속에 허덕이는 현재 다나 낙농가와 운명의 공동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째, 우유소비량를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생활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유소비량를 늘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유생산에 있어서도 대량유통 대량소비의 패턴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입개방의 효율적 대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축산업 자조금법안을 검토하여 축산업계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집유일원화는 생산자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산자 단체로 집유일원화가 되도록 낙농진흥법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적체된 분유를 대량으로 소비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채택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낙농가와 낙농관련 종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대동단결 해주시고 또한 우리 평화민주당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 하여도 농민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